

정책동향

중기청, 벤처 주식발행제도 순회교육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한국증권업협회 및 코스닥 증권시장과 공동으로 지방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조달 및 주식발행제도에 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방법 및 주식발행 실무, 제3시장 지정 및 시장운영제도, 유가증권 및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제도 등을 교육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주식발행 실무교육은 주식사무 관련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방법 및 증권시장 진입 등 관련제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설명회는 오는 16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광주 순으로 열린다.

벤처 안정자금 추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이 중소·벤처 경영안정자금 7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원부자재 구입 및 시설투자에 따른 운전자금, 경영혁신자금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진공은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연리 5.9%(신용의 경우 6.4%)의 조건에 융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한도도 5억원 한도 내에서 결산연도 매출액의 1/4 이내에서 1/3 이내(한도 5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업체는 각 지역 중진공사무소 등을 통해 문의,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통보 받을 수 있다.

기술동향

국가과학기술 정보 표준화 추진

국가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지적재산·데이터 등 문헌과 사실정보가 내년 말까지 표준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실무표준화 모임인 ‘과학기술정보표준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KISTI를 중심기관으로 우선 공공부문의 전문정보센터 23곳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표준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일반·문헌정보·사실정보·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등 5개 분야의 표준화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표준화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정보 자원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표준화사안을 연구·심의·의결해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표준화 계획수립과 표준안 공동개발, 국가 및 국제표준화에 공동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중 지식정보 표준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 표준화 수요조사에 나서 상반기 중 표준화 과제를 선정키로 했으며 내년 말까지 정부의 표준화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활기 띠는 꿈의 신소재 상용화

최근 마그네슘, 리퀴드메탈, 티타늄 등의 신소재를 응용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산업체에서 다양한 신소재를 채용한 응용제품을 내놓으면서 관련 소재업체들이 잇따라 양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꿈의 신소재’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각종 신소재는 기능면에서 기존 재료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조원가가 비싸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 범용소재에 비해 신소재는 대개 최소 4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가격이 비싸다.

특히 티타늄, 마그네슘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경제성이 있는 광산이 없어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리퀴드메탈은 주 원료의 90% 이상을 러시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즉 시장이 활성화한다 해도 안정적인 원료수급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국내에서 원료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의 관련업체와 손을 잡거나 아예 광산 개발에 투자를 단행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신소재 개발에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산업동향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매출은 2000년 대비 29.3%(정보통신서비스업 52.9%) 증가한 65억원으로 조사되었고, 50% 이상이 자체기술력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응답했다. 고용규모도 약 3명 늘어난 것으로 응답함으로써(평균 31.6명) 대졸고급인력의 실업난 완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분야가 매출액 및 경상이익률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실현한 반면, 정보통신서비스업종 등 연구개발기업은 매출액은 대폭 늘었지만 인건비 등 원가상승, 경쟁 심화 등으로 적자를 실현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금년 초 발표했던 '벤처기업 건전화방안' 과 아울러 벤처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도모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응용사업으로 불황 넘긴다

IT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기존 보유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등 활로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은 종전 막대한 비용을 투자, 관련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신규 사업에 나서던 것과 달리 기존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해 매출을 확대하는 등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같은 벤처기업들의 움직임은 기존 사업부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신사업을 벌일 수 있는 데다가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실적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무선 공개키기반구조(PKI) 전문업체인 드림시큐리티(대표 황석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USB드라이브에 자사의 PKI기술을 접목, 온라인 거래시 필수적인 공인인증서와 개인키 저장기능을 갖춘 저장장치 '매직스토어'를 개발해 이미 SK증권에 1만대 납품하기로 계약하는 등 공급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뉴스

[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 패권다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의 패권을 둘러싸고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아메리카온라인(AOL)·마이크로소프트(MS)·야후·어스링크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최근 잇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 이 시장은 현재 AOL이 35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MS가 900만명으로 2위, 어스링크가 490만명으로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야후는 최근 SBC 커뮤니케이션스와 손잡고 새롭게 이 시장에 뛰어 들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의 치열한 다툼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중국] 외국인에 M&A시장 대폭 개방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각종 규제책으로 지분투자가 제한됐던 외국인들이 우량 국영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저우 샤 추엔 의장은 "외국계 기업이나 사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1200개 상장기업은 거의 대부분 국영기업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전혀 없으며 개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을 뿐이다.

[유럽] 2003년 유럽 IT 지출 증가 전망

내년도 서유럽 기업들의 정보기술 관련 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서유럽 기업들의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IT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CIO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유럽 지역 대기업 CIO 3명 중 1명은 2003년 3% 이상 늘리겠다고 대답했으며, 10명 중 1명은 10% 이상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내년에 3%이상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CIO는 5명 중 1명, 10% 이상 삭감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1명 중 1명 꼴이었다. 이들 중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기업들의 CIO가 IT 지출 확대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